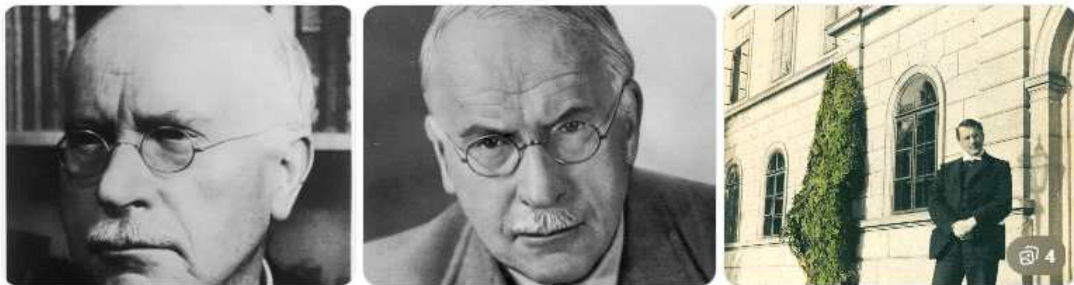


칼 융의 개성화의 영적 여정으로서의 중독 익명의 모임 12단계

2026년 3월 8일

Carl Jung and Alcoholics Anonymous. The Twelve Steps As A Spiritual Journey of Individuation



Carl Jung (1875-1961)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Analytical Psychology)의 창시자입니다.



Rowland Hazard III(1881-1945)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이며, 심리학자 Carl Jung의 환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알코올중독 치료 경험은 후에 Alcoholics Anonymous(AA)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는 “Rowland H.”라는 이름으로 AA의 기원 서사 속에서 언급된다.

용과 만남 및 알코올중독 회복

1920년대 중반, Hazard는 알코올 의존 문제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용의 분석 치료를 받았다. 용은 그가 의학적으로 “치유 불가능한 만성 알코올중독자”라고 진단하고, 영적 각성(vital spiritual experience)만이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충격적 진단은 Hazard가 영적 갱신을 추구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용의 조언을 계기로 Hazard는 1920-30년대 복음적 갱신 운동인 Oxford Group에 참여했다. 그는 이 단체의 영적 원칙을 통해 회복을 경험했고, 그 메시지를 다른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전했다. 그가 도운 Ebby Thacher는 이후 Bill Wilson(“Bill W.”)에게 이 원칙을 전달했고, 이것이 Alcoholics Anonymous 창립의 계기가 되었다.

Rowland Hazard III는 직접적으로 AA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의 회복 여정과 용과의 대화는 영적 각성이 알코올 중독 회복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의 삶은 심리치료, 종교적 체험, 그리고 현대 중독 회복 운동의 교차점에서 여전히 연구되고 있다.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은 어떤 운동인가?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은 1920~30년대에 활동했던 기독교 영적 갱신 운동입니다.

창립자는 미국의 루터교 목사 Frank Buchman입니다. 이 운동은 사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많은 활동이 옥스퍼드 대학 주변에서 이루어져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이 운동의 핵심 목적은 개인의 도덕적·영적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는 경험을 강조했다.

옥스퍼드 그룹의 핵심 영성

이 운동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영적 실천이 있었다.

1. 절대적 도덕 기준 (Four Absolutes)

이들은 네 가지 절대 기준을 강조했다.

절대 정직 (Absolute Honesty)

절대 순결 (Absolute Purity)

절대 이타성 (Absolute Unselfishness)

절대 사랑 (Absolute Love)

이 기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했다.

2. 자기 고백 (Confession)

옥스퍼드 그룹에서는 자신의 잘못, 숨겨진 죄, 거짓된 삶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했다. 이것은 훗날 12단계의 5단계로 이어진다.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의 본질을 인정하였다.”

3. 잘못을 바로잡기 (Restitution)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12단계의 8단계와 9단계로 이어진다.

4. 하나님의 인도 (Guidance)

이들은 매일 조용한 시간(Quiet Time)을 갖고 기도, 묵상, 하나님의 인도 듣기를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12단계의 11단계와 매우 유사하다.



Ebby Thacher와 Bill Wilson

에드윈 스록모턴 대처(Edwin Throckmorton Thacher, 1896-1966)는 알코올중독자 자조단체 알코올중독자 익명단(Alcoholics Anonymous, AA)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다. 그는 공동 창립자 빌 윌슨에게 영적 각성과 금주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친구로, 흔히 “빌 W.의 후원자(sponsor)”로 불린다.

빌 윌슨에게 ‘한 알코올중독자가 다른 알코올 중독자에게 말한다’라는 회복 개념을 전함

대처는 철도차륜 제조로 부를 축적한 올버니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학업 성적은 부진했으나 1910년대 버몬트 주 맨체스터에서 빌 윌슨과 친분을 맺었다. 성인이 되어 과음으로 여러 차례 구속과 정신병원 입원을 겪었으며, 1934년 총기 난동 사건 이후 옥스퍼드 그룹의 구성원들 덕분에 수감 대신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회복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빌 윌슨과의 관계

1934년 11월, 대처는 금주 상태로 윌슨을 찾아가 자신이 옥스퍼드 그룹에서 배운 영적 경험과 자기성찰, 보상, 봉사의 원리를 전했다. 윌슨은 이를 계기로 신앙적 체험을 하고 1935년 알코올중독자 익명모임을 공동창립하였다. 대처는 윌슨에게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을 건네며 정신적 회복의 길을 열어 주었다.

대처는 평생 단주와 재발을 반복했으나, 윌슨은 생애 끝까지 그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그는 알코올중독이 만성적 질환임을 상징하는 인물로 회자된다. 1966년 버몬트의 재활농장 ‘맥피 팜’에서 사망 당시 그는 다시 단주 중이었다. 대처의 방문은 윌슨의 각성을 촉발한 결정적 사건으로, 오늘날에도 AA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The Man Who Carried the Message)”으로 기억된다.



Bill Wilson(1895-1971)은 Alcoholics Anonymous의 공동 창립자이며, 중독 회복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AA에서는 보통 “Bill W.”라고 부릅니다.

1. 초기 삶

출생: East Dorset, 미국 버몬트

직업: 증권 중개인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

젊은 시절 그는 매우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술 때문에 직업과 삶이 거의 붕괴될 정도였습니다.

2. 회복의 전환점

1934년 그는 뉴욕의 Towns Hospital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 안이 빛으로 가득 차는 느낌이었고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 체험 이후 그는 술을 끊게 되었지만,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도울 때 자신의 금주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3. 밥 스미스와 만남

1935년 오하이오 Akron에서 외과 의사 Bob Smith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바로 AA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다음 원리를 발견합니다. 중독자는 다른 중독자를 도울 때 회복이 유지된다.

4. 빅북 (AA의 핵심 문서)

1939년 그는 AA의 기본 텍스트인 Alcoholics Anonymous 을 집필합니다.

이 책에는 AA 프로그램 12단계(12 Steps), 중독자의 실제 회복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Bob Smith(Dr. Bob, 1879-1950)는 Alcoholics Anonymous의 공동 창립자이며, 평생 알코올중독과 싸우다가 회복의 길을 찾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1. 직업과 배경

직업: 외과 의사

활동 지역: Akron, 미국 오하이오

출생: 버몬트주

그는 의사로서 능력이 있었지만 심각한 알코올중독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술 때문에 병원 근무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번 금주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 빌 윌슨과 만남

1935년 Bill Wilson이 사업 실패로 아크런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때문입니다.

둘 다 알코올중독자

서로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이야기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게 되는 경험

이 경험이 바로 AA의 핵심 원리인 “중독자는 다른 중독자를 도울 때 회복을 유지한다”라는 생각의 출발점이 된다.

3. AA에서의 역할

AA 역사에서 두 사람의 역할은 조금 다르다.

- 빌 윌슨

사상과 프로그램 정리

Alcoholics Anonymous 집필

전국적으로 AA 확산

- 밥 스미스

실제 초기 회복 공동체 형성

아크런 지역에서 많은 알코올중독자를 직접 돌봄

병원에서 중독자 치료 시작

즉 빌 윌슨은 사상과 글을 만든 사람

즉 밥 스미스는 실제 회복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4. 마지막 술

밥 스미스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날은 1935년 6월 10일입니다. 이 날은 지금도 AA에서 “Founder’s Day” 라고 불리며 AA의 시작을 상징하는 날이다.

5. 성격과 영향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우 겸손한 성격으로 자신을 지도자로 내세우지 않음
실제로 중독자들을 집에 데려와 돌봄, 그래서 AA 역사에서는 그를 종종 “AA의 조용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옥스퍼드 그룹에 참여 시간순서

1931~32년 Rowland Hazard, 용 상담 후 옥스퍼드 그룹 참여

1933년경 Dr. Bob, 아크론 옥스퍼드 그룹 참여 시작

1934년 Rowland → Ebby Thatcher 전도

1934년말 Ebby → Bill Wilson에게 전함

1935년 6월 Bill W.와 Dr. Bob 첫 만남 → AA 탄생

제1장

칼 융과 빌 월슨 (1945-1961)

‘학생’ 마르가리타 루티쇼(Margarita Luttichau)를 매개로 한 빌 월슨과 칼 융의 소통. 빌 월슨과 칼 융 사이의 서신 교환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던 마르가리타 루티쇼를 통해 가능해졌다. 그녀는 칼 융의 제자였으며, 동시에 빌 월슨의 보호를 받던 인물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두 사람 모두에게서 멘토링을 받았다. 마르가리타는 미국과 스위스를 오가며 편지와 대화를 통해 각자가 한 말과 글, 그리고 사상을 서로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A.A. 집단 작업의 형식과 원리를 ‘일반적 신경증(general neurotics)’에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45년 여름, 마르가리타는 빌 월슨에게 융의 저서 『영혼을 찾아서(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한 권을 건네주었다. 빌은 1945년 10월 초,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낸터킷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의 기억이 자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쁘게 되살아 납니다. 당신이 내게 건네준 그 책에 대해 나는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내가 융 박사에게 대해 갖고 있던 단편적인 인상들을 확인해 줄 뿐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감수성, 진정한 겸손, 여전

히 혼란스러운 분야에서 종합을 이뤄내는 그의 능력—이러한 자질들은 참으로 감탄할 만합니다. …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며 당신에게 보내드린 A.A. 책이 길을 잃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AAA, 1945, Box 18, R 8)

1945년 11월, 마르가리타는 취리히에서 융(C. G. Jung)을 만나 빌 월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A.A.와 관련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인쇄물 자료들(bits of printed matters I had along)”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1945년 12월 초, 월슨의 편지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융은 완전히 매료되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물론 당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신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A.A.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열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AAA, 1945, Box 18, R 8)

마르가리타는 융이 A.A. 관련 문헌을 읽은 뒤, 그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계획이었다. 그녀는 편지의 말미를 이렇게 맺었다.

나는 뉴욕에서의 그 멋진 토요일을 자주 떠올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내와 파티에서 만났던 모든 친구들에게 나의 인사와 안부를 전해 주세요.

한 달 뒤인 1946년 1월 10일, 월슨은 마르가리타에게 세 쪽 분량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그는 프로이트 학파와 융 학파가 신경증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를 대비시켰다. 요컨대 프로이트는 무신론자였던 반면, 아버지와 삼촌들이 모두 성직자였던 융은 자신의 심리학에 영적 차원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월슨은 편지를 이렇게 시작했다.

“사랑하는 마르가리타, 당신의 길고도 매혹적인 편지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았습시다.”

(AAA, 1946, Box 18, R 8)

그는 『영혼을 찾아서(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를 “거듭해서 읽었다(read and re-read)”고 적었다.

프로이트의 선구적 업적을 토대로 하면서도, 융 박사는 진단과 치료, 성격의 구성, 그리고 우주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융 박사는 열린 마음을 지닌 인물로 보이며, 공감적 종합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프로이트에게서는 거의 결여되어 보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언젠가 꼭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월슨은 마르가리타에게 자신이 프로이트의 저서 『정신분석 입문(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을 읽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우울한 노인으로 생을 마쳤다고 전해지는 점은 이해할 만합니다. 자기 폭탄에 스스로가 터져 죽은 셈이니까요…. 나는 프로이트의 작업에서 비롯된 철학적 함의들이 현대 사유를 상당 부분 오염시켰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 학파의 치료를 받아온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A.A.로 들어옵니다. 그들의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 정신과 의사 전반을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는 부당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이 갖는 인상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료를 통해 치유되기보다 오히려 산산이 부서진 듯 보이는 유형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해 준 것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우 흥미로운 유형의 프로이트 학파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종교의 신봉자들이 창시자를 숭배하듯 프로이트를 떠받칩니다. 그들은 어떤 질문이나 의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프로이트를 인류를 해체해 드러낸 위대한 폭로자로 숭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해체해도 견딜 만큼 강하다고 여깁니다. 이들은 대체로 무신론적이고 냉소적이며, 무자비하게 경쟁적이고 쇠처럼 단단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빌은 말을 이어갔다.

물론 나는 이러한 관찰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분야의 신참으로서, 사실 이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A.A.에서는 정신의학의 ‘실패 사례’만 보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편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프로이트 학파의 치료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A.A.에 들어온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많은 이들이 그 경험을 다시 돌아보며 그 안에서 도움이 되는 많은 요소를 가려낼 수 있었다고 보고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월슨은 또한 마르가리타에게, 용의 옛 환자였던 로울랜드 해저드(Rowland Hazard)를 상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해저드를 “뉴욕에서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과 함께 활동하던 알코올중독자…로서, 나 자신의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1947년 9월 2일, 마르가리타는 스위스 아스코나(Ascona)에서 열린 분석심리학 학회 동안 용(C. G. Jung)과 나는 “긴 대화”에 대해 빌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의 편지에는 집단 작업에 대한 용의 반감이 언급되어 있다.

“그가 집단 작업이 아니라 개인의 형성에 관심이 있다는 점은 나도 잘 알고 있었지

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그는 매우 큰 관심을 보였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완전한 지침을 내게 주었습니다.”

(AAA, 1947, Box 18, R 8)

한 달 뒤인 1947년 10월, 월슨은 마르가리타의 편지에 답하며 이렇게 썼다.

“당신이 용 박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매우 기쁘게 읽었고, 신경증에 대해 집단적 방법이 무언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비록 그와 반대되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듯 보이긴 하지만요.”

그보다 앞선 1947년 3월, 월슨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그곳을 방문하는 마르가리타가 머물 숙소를 구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녀는 칼 용 박사로부터 개인적인 신임을 받은 극소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AAA, 1947, Box 18, R 8)

월슨은 이어 이렇게 설명했다.

“A.A.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용 박사에게 전한 사람은 바로 나의 친구 마르가리타였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강렬한, 심지어 흥분에 가까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A.A.의 방법들이 결국 신경증 전반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표현했으며—그 적용 범위가 알코올 문제를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월슨은 또한 마르가리타가 자신의 개인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자신이 이에 “특히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나 자신의 심각한 우울증 경험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르가리타가 “신경증에 대한 어떤 실험적 집단 작업에 우리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다”라고 설명했고, 그녀가 뉴욕으로 돌아오면 “내가 분명히 첫 번째 후보가 될 신경증 집단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편지를 마르가리타에 대한 개인적 승인으로 마무리했다.

비록 알코올중독자는 아니지만, 마르가리타는 ‘우리 중 한 사람(one of us)’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용 박사의 도움, 그리고 덧붙이자면 마르가리타 자신의 영적 자원들 또한 매우 탁월했다.

월슨, 용, 그리고 마르가리타가 오간 이 삼각적 서신 교환을 통해 우리는, A.A.의 형식과 원리들이 다양한 신경증과 다른 중독 문제들로 확장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 A.A.의 12단계는 수많은 다른 문제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오늘날에는 학대 생존자, 신경성 식욕부진과 폭식증, 불안과 우울,

공포증, 재정 문제 등을 위한 12단계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12단계 프로그램은 다른 중독 영역에도 자연스럽게 이식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존재한다.

익명의 마약중독자들(Narcotics Anonymous),
익명의 일중독자들(Workaholics Anonymous),
익명의 성중독자들(Sexaholics Anonymous),
익명의 도박중독자들(Gamblers Anonymous),
익명의 코카인중독자들(Cocaine Anonymous),
익명의 마리화나중독자들(Marijuana Anonymous),
익명의 니코틴중독자들(Nicotine Anonymous),
익명의 공동의존자들(Co-Dependents Anonymous),
그리고 익명의 약물중독자들(Pills Anonymous)이 그것이다.

A.A. 집단 작업을 ‘일반적 신경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칼 융의 태도

융은 집단이 개성화(individuation) 과정을 억압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융 분석가인 로버트 스트루벨(Dr. Robert Strubel)은 다음과 같이 쓴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 융이 남긴 다른 발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편견 하나로 융을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로버트 스트루벨이 제공한 원 논문 2쪽, Beebe, 1983에 재수록)

마르가리타 루티쇼와 빌 월슨 사이의 서신은, 융이 집단 작업을 지지할 만큼 충분히 유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A.A.가 집단 방법을 통해 거둔 명백한 성공은, ‘일반적 신경증’에 집단 작업을 적용하자는 마르가리타의 제안에 융이 열린 태도를 보이게 된 핵심 이유였다. 실제로 융은 집단 심리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집단 안에서 경험되는 어떤 변화도 지속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집단 안에서 변형을 경험하는 것과 그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이다. 상당한 규모의 사람들이 특정한 정신적 틀에 의해 서로 결속되고 동일시될 때, 그로부터 생겨나는 변형 경험은 개인적 변형의 경험과는 매우 희미한 유사성만을 가질 뿐이다. (융 전집, CW 9i, §225)

융은 또한 집단 안에서의 변형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난다”라고 보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함께 존재할 때 강력한 암시적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중 속의 개인은 자신의 암시성에 쉽게 희생된다.(CW 9i, §225)

융은 전쟁 이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집회에서 히틀러가 집단을 최면 상태처럼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집단이 결국 그 집단 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구성원의 수준으로 가라앉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집단을 싫어했다. 집단에서 떠오르는 전체 정신은 개인의 정신 수준보다 낮다. 집단이 클수록, 집단 정신은 동물의 정신에 더 가까워진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조직의 윤리적 태도가 항상 의심스러운 이유다.(CW 9i, §225)

역설적이게도, 여기 인용된 융의 말들은 전반적으로 집단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A.A. 집단 모임의 조직 구조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읽힐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집단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집단 경험은 그 상태에서 개인이 지닌 의식의 수준보다 더 깊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변화는 지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험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대중적 도취 상태에 의존하게 된다.(CW 9i, §226)

집단 안에서의 변화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융의 신념은 복음주의 집회(evangelical meetings)에서 잘 드러난다. 실제로 에비 대처(Ebby Thacher)의 영향을 받은 빌 윌슨 역시 처음에는 복음주의적 성격을 띤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는 칼버리 교회(Calvary Church)의 집단 모임에 참여해 앞으로 나가 술을 끊겠다고 서약했지만, 다음 날 다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변화가 영구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함으로써 동일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재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영감을 주는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임에 계속 참석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A.A. 집단의 지지를 통해 금주에 도달한 사람들이 왜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회복된 사람은 자신의 금주를 집단의 지지 덕분에 이루었으며, 일반적으로 금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A. 공동체와 그 12단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모임에 “계속해서 다시 오라(keep coming back)”는 말을 듣는 이유다.

흥미롭게도, 융은 집단에 대해 격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긍정적인 경험들도 있다. 예컨대 개인을 고귀한 행동으로 이끄는 긍정적 열정, 혹은 인간적 연대감이라는 동등하게 긍정적인 감정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집단은 개인에게 용기와 중심, 그리고 고립 속에서는 쉽게 상실될 수 있는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다. 집단은 그 안에서 인간들 가운데 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기억을 일깨울 수

있다. (CW 9i, §228)

생각해 볼 질문

① 집단에서의 변화는 왜 쉽게 일어날까?

집단 안에서 느끼는 감동은 나의 변화인가, 집단의 영향인가?

나는 집단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② 집단 경험과 개인 변화는 어떻게 다른가?

나는 집단에서만 달라지는 사람인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③ 왜 집단은 가장 낮은 의식 수준으로 내려갈까?

집단은 왜 때때로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는가?

④ 그렇다면 익명의 모임은 왜 효과가 있을까?

왜 익명의 모임은 단순한 군중 심리로 끝나지 않을까?

익명의 모임은 일반 집단과 무엇이 다른가?

(익명성, 겸손, 자기 고백, 책임)

⑤ 집단은 언제 치유가 되고 언제 위험해지는가?

집단은 언제 성장을 돕는 공동체가 되는가?

집단은 언제 집단적 도취가 되는가?

⑥ 왜 회복자는 계속 모임에 참석해야 할까?

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다시 무너질까?

공동체는 어떤 심리적 보호막을 제공하는가?

⑦ 공동체는 어떤 대상 경험인가?

익명의 모임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대상 환경(new relational environment) 이다.

공동체는 어떤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가?

그것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는가?

⑧ 왜 고백(confession)은 치유적일까?

익명의 모임의 핵심 구조이다.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치유되는가?

고백은 수치심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⑨ “공동체는 개인의 개성화를 방해하는가, 아니면 돕는가?”

“중독자는 술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술이 만들어 주는 상태를 사랑하는 것일까?”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지지의 수단으로서 A.A. 집단의 중요성은 중독 분야에서 활동한 정신과 의사 게롤드 로스(Dr. Gerold Roth)의 미출판 학위 논문에서도 언급된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A.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단순히 중독 대상의 전환 (addiction shift)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종종 실제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적 작업은 공통의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고, 실제로는 집단 무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오늘날에는 A.A.의 12단계를 토대로 하거나 그 구조를 본뜬 ‘신경증 환자(neurotics)’를 위한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예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집단적 지지를 제공하는 AWARE 그룹이다(aware.ie). 또한, 일부 용 분석가들이 집단 분석을 통해 매우 성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선구적인 연구와 임상 실천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은 집단이 자연스럽게 희생양을 찾고, 개별 구성원을 괴롭히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있어서 옳았다. 이러한 현상은 아서 콜먼(Arthur Colman) 박사의 저서 『희생양 만들기를 넘어서(Up From Scapegoating)』(Colman, 1995)에 잘 예시되어 있다.

빌 월슨이 칼 용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961)

빌 월슨은 용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고, 그의 비서인 아니엘라 야페(Aniela Jaffé)에게도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다. 첫 번째 편지는 1961년 1월 23일 자로 되어 있다. 월슨은 아니엘라 야페에게 보내는 표지 편지를 함께 첨부했는데,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오래전에 이미 용 박사께 보내졌어야 할 편지를 동봉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편지는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Alcoholics Anonymous)의 형성에 있어 그분이 수행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페에게 보낸 편지 역시 1961년 1월 23일 자이며, Stepping Stones 기록 보관소 소장)

월슨은 용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기억에 따르면 용의 옛 환자였던 로울랜드 해저드(Rowland Hazard)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인물-가 재발을 경험한 뒤 1931년에 다시 용을 찾아갔다고 썼다(실제로는 1926년이었음. Bluhm, 2006 참조). 월슨은 해저드와 용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상기시키며 이렇게 적었다.

우선, 당신은 추가적인 의학적 혹은 정신과적 치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 담담하고 겸손한 진술은, 의

심할 여지 없이 이후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첫 번째 기초석이었습니다.

월슨은 이어서 이렇게 썼다.

그가 다른 어떤 희망은 없는지 당신에게 물었을 때, 당신은 영적 혹은 종교적 경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주셨습니다—요컨대, 진정한 회심(genuine conversion) 말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경험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경험이 때때로 알코올중독자에게 회복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비교적 드문 경우에 속한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가 종교적 분위기 속에 자신을 맡기고 최선을 바라보라고 조언하셨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의 충고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로울랜드 해저드(Rowland Hazard)는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에 참여했고, 이는 그가 일시적으로 술을 끊는 데 도움을 주었다(Kurtz, 1991, p. 9). 이후 로울랜드는 에비 대처(Ebby Thacher)를 설득해 술을 끊게 했고, 에비는 다시 빌을 옥스퍼드 그룹에 소개했다. 그곳에서 빌은 1934년 말에 금주를 얻게 된다.

월슨은 편지의 말미에서 A.A. 형성 과정에서 용이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자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월슨은 용이 해저드에게 했던 조언이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Alcoholics Anonymous)’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했다(Anon, 2000, p. 125). 물론 용의 조언은 A.A. 창립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연쇄 속에서 중요한 고리였지만, 월슨은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를 포함한 다른 인물들 또한 A.A.의 형성에 기여한 사람들로 평가했다(Anon, 1991b, p. 124).

그러나 A.A. 형성에 대한 용의 기여를 인정한 월슨의 태도는, 순간적인 아부나 즉흥적인 감사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15년 전, 마르가리타 루티쇼에게 보낸 편지에서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월슨은 용이 로울랜드 해저드에게 했던 조언과 그것이 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언급하며, 유머를 섞어 이렇게 썼다.

“그러니 보시다시피, 나는 내가 용 박사의 직계 후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프로이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안이 됩니다.”(1946년 1월 10일 자 서신, Box 18, R 8)

이는 로울랜드 해저드가 처음에는 프로이트에게 환자로 지원하려 했으나, 그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결국 용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Bluhm: 또한 Jung, 1985, pp. 141-142 참조).

월슨의 편지에 대한 용의 답신

용은 월슨의 편지에 7일 뒤인 1961년 1월 30일에 답신했다. 빌의 편지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용은 로울랜드 해저드(Rowlan Hazard)를 언급하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종종 궁금해했다”라고 썼다. 용은 로울랜드와 나눈 자신의 대화가 “그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다수 경험해 온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자신이 처해 있던 어려움을 암시하며,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시절에는 내가 하는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했기 때문이며, 나는 내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신중함은 로울랜드 해저드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는 “그래서 로울랜드 H와 이야기할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용은 로울랜드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없었던 이유가, 그의 질병의 본질을 ‘영적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은 이어서 이렇게 썼다.

그의 알코올에 대한 갈망은, 우리 존재가 온전함(wholeness)을 향해 지니는 영적 갈망의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중세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신과의 합일(union with God)’에 대한 갈망이다.

용은 알코올이 거짓된 영적 경험에 도달하기 위한 지름길임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덧붙였다. 그러한 경험에 이르는 유일하게 옳고 정당한 길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하며, 더 높은 이해로 이끄는 길을 걸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영적 경험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이와 같은 용의 관점은, 1961년 3월 20일자 월슨의 후속 편지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부인 상태를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LSD를 사용해 ‘즉각적인’ 초월적 경험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용은 자신의 편지에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코올이 그러한 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즉 알코올이 “타락을 초래하는 독(a depraving poison)”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의 원리가, 인식되지 않은 영적 필요를 파멸로 이끈다고 굳

게 확신한다. 그것이 참된 종교적 통찰이나 인간 공동체의 보호적 울타리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위로부터의 어떤 작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고립된 평범한 인간은 악의 힘에 저항할 수 없으며, 그 악은 매우 적절하게도 악마(The Devil)라고 불린다.

융은 이미 1957년에 영적 지향 자원이 없는 사람들의 취약성에 대해 글을 쓴 바 있으며, 자신의 저서 『발견되지 않은 자아(The Undiscovered Self)』의 한 장에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곤경(The plight of the individual in modern society)」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신념을 상세히 전개했다.

“신 안에 닳을 내리지 못한 개인은, 세상의 물리적·도덕적 유혹에 맞서 자기 자신의 자원만으로는 어떤 저항도 제공할 수 없다.”(Jung, 1974, p. 24)

생각해볼 만한 질문

① 인간은 왜 초월을 갈망하는가?

② 나에게 중독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중독(집착, 업적 등)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었는가?

나는 무엇에서 도망치고 있었는가?

중독은 나에게 어떤 가짜 영적 경험을 주었는가?

③ 진짜 영적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진짜 변화는 왜 시간이 필요한가?

왜 공동체와 진실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가?

빌 윌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융은 수사적으로 이렇게 물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오해받지 않도록 이러한 통찰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Jung, Letter to Bill Wilson, 1961)

그리고 영성의 문제를 언급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저울질하듯, 1960년대 초반에조차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의 사용은 너무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는 융의 영적 조언이 수용할 수 있게 들릴 수 있지만, 1920~30년대 당시의 융은 영성의 치유적 힘에 관심을 두지 않던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 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 시기의 정신의학과 정신분석은 자신들의 방법에 과학적 신뢰성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었으며, 영성과 심리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실무자들에게 금기(anathema)에 가까운 것이었다. 융이 환자들에게 ‘종교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거나, 환자들에게 영적 결핍(spiritual deficit)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어떤 암시라도, 그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종교적 또는 영적 문제(religious or spiritual problem)’라는 용어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성경’이라 불리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의 최신판에서야 비로소 하위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이 용어는 ‘임상적 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Other conditions that may be the focus of clinical attention)’라는 범주에 배치되어 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p. 725).

1930년대 중반의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알코올중독자 치료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 1935년, 금주법(Prohibition) 폐지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알코올중독이 기존의 의학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도덕적 실패(moral failing)’라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MA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도덕적 타락(moral turpitude)의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자기 자신이 초래한 질병이므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알코올중독자를 치료하려는 시도는 의사들에게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AMA는 알코올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1935년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Alcoholics Anonymous)이 창립된 시점은 우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미국 의학계가 남긴 공백을 메운 보상적 대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각해 볼 질문

“사람은 왜 도덕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가?”

1. 욕망과 이익의 충돌

도덕적 기준 (이렇게 해야 한다)

욕망과 이익 (이렇게 하고 싶다)

예: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
남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돈 때문에 사기

2. 자기합리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다들 그렇게
한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 즉 도덕을 어긴 후에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합리화라고 한다.

3. 무의식의 영향

Carl Gustav Jung 은 인간 안에 “그림자(Shadow)”가 있다고 보았다.

그림자란 공격성, 질투, 탐욕, 권력 욕망같이 의식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다.

문제는 인정하지 않을수록 더 강하게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4. 집단과 사회의 압력

사람은 개인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조직이 부패하면 개인도 따라감

주변 사람들이 다 하면 죄책감이 약해짐

집단 따돌림

개인의 도덕보다 집단 규범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5. 두려움

도덕을 지키려면 때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 내부 고발 → 직장 잃을 수 있음

부당한 권력에 저항 → 처벌 가능

그래서 사람은 종종 양심보다 안전을 선택합니다.

6. 인간의 불완전성

예: 기독교 → 원죄

불교 → 탐·진·치 (탐욕, 분노, 무지)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을 지키기 어렵다고 본다.

융은 율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울랜드 해저드의 운명에 대해 “종종 궁금해했다”고 언급했지만, 그의 자서전 『기억, 꿈, 사상(Memories, Dreams, Reflections)』(Jung, 1985)에는 로울랜드와 유사한 한 환자-혹은 여러 환자들의 복합적 형상-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예컨대, 한 미국인 동료가 ‘불치의 알코올 신경쇠약(alcohol neurasthenia)’이라는 진단과 함께 환자를 융에게 보냈다는 대목이 있다. 그 의사는 또한 그 환자에게 “내가 시도하는 치료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베를린의 신경학적 권위자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Jung, 1985, pp. 141-142).

흥미롭게도, 로울랜드 역시 처음에는 비엔나에서 프로이트를 찾아가 보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프로이트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결국 당대에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던 다음 정신과 의사, 칼 융을 방문하게 되었다(Bluhm). 융은 로울랜드와 더욱 유사한 또 다른 환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옥스퍼드 그룹의 한 구성원이 치료를 받기 위해 나를 찾아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옥스퍼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 문제를 옥스퍼드 그룹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나는 예수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CW 18, §620)

이와 관련하여, 융은 다음과 같은 사례 보고(case presentation)를 제시한다.

한 히스테리성 알코올중독자가 이 집단 운동에 의해 치유되었고, 그들은 그를 일종의 본보기로 삼아 유럽 전역을 돌게 했다. 그는 곳곳에서 매우 훌륭하게 고백을 했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하곤 했다.

그는 이 집단 운동을 통해 치유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를 스무 번, 혹은 오십 번쯤 반복해서 하다 보니, 그는 그것에 싫증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 영적 감각(spiritual sensation)은 그저 사라져 버렸다. 이제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그는 병리적인 상태이니 의사에게 가야 한다.” 보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에 의해 치유되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사에 의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로 거절했다. 나는 그 사람을 다시 그 집단으로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예수가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 믿는다면, 예수는 두 번째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다. 사람이 병리적인 상태가 되면 예수는 더 이상 그를 돕지 못하고, 의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CW 18, §621)

한 사람이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 운동을 믿는 한 그는 그곳에 머문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가톨릭교회 안에 있는 한, 좋은 나쁜 그는 가톨릭교회 안에 있으며, 그 수단을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실제로 그들이 그러한 수단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보아 왔다—그것은 사실이다! 고해성사(Absolution)와 성찬(Holy Communion)은 매우 심각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CW 18, §622)

금주를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집단에 대한 용의 언급은 풍자(parody)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즉, 회복 중인 알코올중독자이자 A.A.의 구성원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 재발(relapse)할 경우, 그 연관성 때문에 사람들은 A.A.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회복을 전도하듯 알리다가 ‘미끄러진(slips)’ 유명 인사들에 대한 이와 같은 풍자적 사례들이, A.A.가 언론·라디오·영화의 차원에서 익명성(anonymity)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도록 자극했을 것이다. 익명성의 원칙은, 금주를 이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매체의 주목 속에서 과시하며 자아(ego)를 키우는 대신, A.A.의 영적 원칙들에 충실하도록 구성원들을 이끈다.

생각해 볼 질문

① 왜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 후에도 재발하는가?
많은 회복자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영적 체험과 영적 성숙은 무엇이 다른가?

② 왜 공개적인 간증이 위험해질 수 있을까?

사람은 처음에는 증언(testimony)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것이 자아를 키우는 무대가 될 수 있다.

회복 간증은 언제 영성이고 언제 자기 과시가 되는가?

③ 왜 A.A.는 익명성을 강조했을까?

Alcoholics Anonymous 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익명성의 의미는 단순히 신분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왜 회복 과정에서 자아 팽창이 위험한가?

영적 회복과 겸손은 어떤 관계인가?

성찰 질문

① 나는 영적인 감동이나 특별한 경험만 찾고 있는가,
아니면 그 경험이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도록 나아가고 있는가?

② 나는 회복 이야기를 왜 하는가?
나는 왜 내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섬김인가 아니면 인정 욕구인가?

③ 나는 무엇을 통해 나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려 하는가?
중독이 끝나도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아를 키우려 합니다.

나는 회복을 통해 겸손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특별해지고 싶은가?

“나는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영적 체험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지만 자아는 그 체험조차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관계), 익명성, 겸손이 필요하다.

빌 월슨의 LSD 실험

A.A. 본부 내부에는 여전히, 빌이 용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둘러싼 상당한 보호적 태도가 존재한다. 이는 빌의 편지 세 번째 쪽에서, 프로그램의 영적 측면에 어려움을 겪는 알코올중독자들을 LSD로 치료하자는 자신의 입장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츠(Kurtz)에 따르면, “월슨이 생애 마지막 15년 동안 A.A. 바깥에서 기울인 주요한 노력은, 일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마음을 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들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Kurtz, 1991, p. 137)

생화학자이자 정신의학 교수인 에이브럼 호퍼(Abram Hoffer)와 정신과 의사 험프리 오스몬드(Humphrey Osmond)는, 알코올중독 치료에 LSD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New Hope for Alcoholics)』(Hoffer & Osmond, 1968)을 공동 집필했다. 이들은 우연히 LSD가 알코올중독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원래 이들은 LSD를 조현병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이 “섬망 진전(delirium tremens)과 매우 유사한 상태”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Anon, 1991b, p. 369). 일종의 파블로프식 행동 훈련으로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경고 효과를 주기 위해 섬망 진전과 같은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알코올 중독자들은 LSD 경험을 실제로 즐겼으며, 섬망 진전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그 경험을 “깨우침을 주는(illuminating)”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호퍼와 오스몬드는, LSD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금주를 돕는 영적 경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책에는 LSD로 성공적으로 치료된 알코올 중독자들의 여러 사례 연구가 인용되어 있다.

호퍼는 이러한 결과를 빌 월슨에게 알렸고, 처음에 빌은 “극도로 불쾌해했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이후 월슨은, 호퍼와 오스몬드가 얻고 있던 치료 성공률이 A.A.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월슨은 만약 LSD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초월적 경험(transcendence)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술을 마실 때 사실상 ‘그 목적을 위해 잘못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Kurtz, 1991, p. 136). 다시 말해, 알코올을 사용해 그들은 저급한 수준의 영적 경험을 얻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빌 월슨은 더 깊이 조사에 나섰고, 결국 에이브럼 호퍼의 환자가 되었다. 그는 LSD가 합법이던 1956년, 그 약물을 복용했다.

빌 월슨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재향군인 행정병원(Veterans Administration Hospital)에서 정신과 의사 시드니 코언(Sidney Cohen)의 의학적 감독하에 LSD를

복용했다(Lattin, 2012, p. 195). 그의 오랜 비서였던 넬 윙(Nell Wing)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초기 영적 체험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을 비밀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야기를 널리 전하고 싶어 했다.” (Anon, 1991b, p. 371)

빌은 아내 로이스(Lois)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설득해 LSD를 복용하게 했고, 그 결과 그녀가 “이 정도로 가벼운 투여만으로도 전반적으로 매우 큰 호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빌은 세일즈맨이었고, 분명히 LSD의 효용성에 스스로 설득되어 있었다. 그러나 로이스 본인은 이렇게 회상했다.

“빌이 나에게 약을 주었어요. 사실 나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물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는 했지만, 색이 더 선명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지각이 더 예민해진다고들 하지만, 나는 원래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이었고, 늘 사물을 자세히 바라보곤 했거든요.”

이로 미루어 보면 빌이 LSD에 대해 맹목적인 옹호자였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독단적인 인물은 아니었으며, 이후 이렇게 썼다.

“물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들 역시 여전히 크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이다.”

1957년, 윌슨은 저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제럴드 허드(Gerald Heard)에게 LSD 사용을 통해 자신이 얻은 개인적·심리적 이득에 대해 편지를 썼다. 그는 우울감의 완화, 그리고 더 커진 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그 효과로 언급했다(Lattin, 2012, p. 183).

1958년 6월, 윌슨은 자신이 처음 금주를 얻게 된 캘버리 교회의 목사 샘 슈메이커(Sam Shoemaker)에게 LSD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장문의 편지로 정리해 보냈다(Anon, 1991b, pp. 373-375). 빌은 LSD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편지에서 알코올중독 치료에 LS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나는 여러 차례 라이서직산(LSD)을 복용했고, 그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중은 LSD가 위험천만한 새로운 정신의학적 장난감이라고 믿도록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LSD가 조현병을 유발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는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난 3~4년 동안 호퍼와 오스몬드는 아마도 약 400명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LSD를 투여해 왔습니다. 광범위한 녹음 기록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례들은 생화학적, 정신의학적, 그리고 영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다시 말

해, 어떤 해로움의 기록도 없었고,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체적 위험 역시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물질은 아스피린만큼이나 무해한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빌은 “바로 그들과 함께, 나는 2년 전 처음으로 이 약을 복용했다”고 적었다.

빌은 또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썼다.

“기도, 금식, 명상, 절망 등 고전적 신비 체험에 이르게 하는 여러 조건들에는, 그에 상응하는 화학적 구성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화학적 조건들은 일상의 자아 충동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만큼 더 넓은 지각의 문을 열어 준다.”

그러나 빌은 예언적으로 LSD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LSD는 오직 연구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 약물이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효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일반 대중에게 풀리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엄청난 불행이 될 것이다.”

결국 LSD는 실제로 ‘일반 대중에게 풀리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강사였던 티머시 리어리(Timothy Leary)는, 빌이 LSD와 관련해 진행하던 작업에 자신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빌은 리어리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서는 분별력을 보였지만, 1961년 그에게 편지를 보내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가 그의 작업을 “열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LSD와 몇몇 유사한 알칼로이드들이 엄청나게 나쁜 언론 보도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막대하고 점점 커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Lattin, 2010, p. 67)

이후 리어리는 취약한 젊은 탐구자들에게 “켜라(turn on), 몰입하라(tune in), 그리고 체제에서 벗어나라(drop out)”라고 부추기게 된다.

많은 이른바 ‘히피 세대’가 LSD를 오남용하며 불법 약물과 함께 복용해 더 강한 ‘황홀감’을 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이 LSD를 자살과 영구적 정신 이상과 연결시키는 선전적 광풍을 일으켰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만약 빌이 리어리와 연관되었더라면, 이는 A.A.의 명성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빌 윌슨이 LSD를 실험했던 것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더 많은 방법을 찾자 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특히 그는 A.A. 안에서 금주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 ‘영적인 것을 붙잡지 못했던’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고자 했다. 1961년 4월, A.A. 잡지 『그레이프바인(Grapevine)』에 글을 쓰며 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25년 동안 30만 명이 회복되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50만 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가, 다시 떠나갔을지도 모른다.”

월슨은 답을 찾기 위해 찾아왔던 이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이 가능했을까도 모른다는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내 로이스에 따르면, “빌의 가장 큰 희망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술을 끊고 싶어 하지만 A.A. 프로그램을 붙잡기에는 너무 병든 상태에 있는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속박에서 풀려나 A.A.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었다.”(Kurtz, 1991, p. 358, 주 7)

이러한 배경과 자신의 LSD 복용 경험에 기반해, 월슨은 다소 순진하게 1961년 3월 칼 융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 알코올중독 치료에 LSD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이후 살펴보겠지만, 빌 월슨은 LSD 사용에 대해 융이 지니고 있던 단호한 반대 입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융은 LSD를 메스칼린과 유사한 물질로 보았으며, 이러한 환각적·의식 확장 약물의 사용은 진정한 영적 경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생각해 볼 질문

① 영적 경험은 의도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삶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가?

② 영적 체험과 영적 변화는 무엇이 다른가?

강렬한 초월 경험이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일시적 체험에 그칠 수 있는가?

③ 중독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융은 알코올 갈망을 “온전함을 향한 영적 갈망의 낮은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왜 술이나 약물을 통해 초월 상태를 찾으려 할까?

그것은 어떤 결핍을 드러내는가?

④ 약물로 얻은 초월 경험은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가?

약물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의존을 만들 위험이 있는가?

⑤ 왜 어떤 사람들은 영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그것은 심리적 방어인가, 상처인가?

⑥ 중독 회복에는 영적 각성이 반드시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길도 존재하는가?

⑦ 나는 무엇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려 하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경험을 찾는가? 그것은 성장인가, 도피인가?

⑧ 나는 변화보다 체험을 더 원하고 있는가?
나는 강렬한 경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가?